

극한 폭염 시 자택 내 온열질환 2배 증가, 무더위쉼터 적극 이용 당부

- 해외 폭염 피해 집 안에 집중, 국내도 극한 폭염 시 자택환자 2배 증가
- 폭염 특보 시 실내 냉방 유의, 무더위쉼터 사전확인, 홀로 계신 부모님 안부 전화 당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올여름 유럽과 일본에서 발생한 폭염 인명피해가 ‘냉방이 어려운 집 안’에 집중된 점을 밝히며, 우리나라 역시 일최고기온이 38℃에 달하는 극한 폭염 시에는 실내 온열질환자 비중이 평소보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프랑스 사례: 자택 사망자 급증 및 방문형 보호 전환

올여름 관측 사상 가장 더운 6월 폭염을 겪은 프랑스는 전국 일평균기온이 30℃(최고 44.3℃)에 도달하고 72개 광역행정구역에 최상위 단계인 폭염 적색경보가 내려졌다.

이번 폭염 기간(6.17.~7.2.)은 예년 같은 기간보다 5,764명(+ 36.2%) 더 많은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특히 폭염이 절정이던 주간(6.22.~28.)에는 자택 사망자가 전주 대비 91%나 급증했다.

프랑스 정부는 요양시설보다 자택에 고립된 취약계층 보호가 더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고, ▲냉방 대피시설 ▲우체국 집배원·이웃을 통한 독거 어르신 안부 확인 등 ‘집에 고립된 사람을 찾아가는 보호’에 집중했다.

>> 일본 사례: 온열질환 발생 장소 1위 ‘자택’ 및 냉방 쉼터 지정

일본은 닥새(7.21.~25.) 연속으로 40℃ 이상을 기록하며 폭염 절정기 한 주

동안 1만 8,591명의 온열질환 구급이송자가 발생했다. 이 중 발생 장소 1위는 작업장이나 길가가 아닌 자택(40.9%)이었다.

특히 도쿄 내 온열질환 사망자 35명에 대한 경위 조사 결과, 사망자의 74%(26명)가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작동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일본 정부는 야간을 포함해 에어컨을 적절히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전국 1,255개 기초자치단체에 냉방쉘터를 지정해 대응에 나섰다.

>> 국내 현황: 발생은 실외 중심, 38℃ 이상 극한 폭염 시 자택 비중 2배 증가

우리나라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실외 작업장·논밭·길가 등 야외에서 발생하며, 자택 발생 비중은 평상시 약 6% 수준으로 해외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질병관리청 및 기상청 자료(2011~2025년)를 분석한 결과, 일최고기온 38℃ 이상으로 치솟는 극한 폭염 상황에서는 전체 온열질환자 중 자택 발생 비중이 기존 6%에서 12%로 약 2배 가량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해 주거지 내 온열질환자 발생 비중이 높지 않지만, 폭염이 심해질수록 집 안에서 발생하는 환자도 함께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라며,

“더위가 심할 때에는 냉방기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밤낮으로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해주시고, 냉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가까운 무더위쉘터의 위치와 운영시간을 미리 확인하시어 폭염 시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책임자	방재연구실장 최우정 (052-928-8200)
	방재연구실	담당자	기상연구관 김도우 (052-928-8220)

참 고

2011~2025년 우리나라 온열질환자 장소별 발생 현황

발생장소	일최고기온 38°C 미만인 날 환자 수(명)	일최고기온 38°C 미만인 날 비중(%)	일최고기온 38°C 이상인 날 환자 수(명)	일최고기온 38°C 이상인 날 비중(%)
집	1,441	6.2	784	12.8
강가, 해변	327	1.4	126	2.1
주거지 주변	970	4.2	305	5.0
건물	583	2.5	180	2.9
길가	2,534	10.9	760	12.4
실내 기타	590	2.5	183	3.0
실외 기타	1,881	8.1	512	8.4
실내 작업장	1,646	7.1	385	6.3
산	617	2.7	130	2.1
실외 작업장	7,416	32.0	1,716	28.0
운동장(공원)	1,342	5.8	283	4.6
논밭	3,472	15.0	697	11.4
비닐하우스	350	1.5	58	0.9
전체	23,169	100	6,119	100

※ ‘일최고기온 38°C 이상인 날’은 기상청 종관기상관측소(ASOS, 전국 90여 개 지점) 중 한 곳 이상에서 38.0°C 이상이 관측된 날로 정의하였으며,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기간(2011~2025년) 총 1,714일 중 61일에 해당됨